

캐나다 단기어학연수 파견자 결과보고서

1. 기본정보

파견국가	Canada	파견도시	Vancouver
파견대학	Langara College	기간	3주

2. 파견대학, 수업 및 Activity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파견대학	Langara 대학은 BC주(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남 밴쿠버에 있으며 Sky train 한마디로 지하철역이 근처에 있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위치해 있으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 그렇지만 다양한 학과들을 위한 건물들은 잘 갖춰져 있는 편이며 주변에 주택들이 많이 있어 조용한 편이다.
수업	수업내용은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었다. 수업 1주차에는 캐나다 생활에 필요한 것들, 2주차에는 문화의 차이점과 3주차에는 다른 나라에서 지켜야 할 사항등 영어 회화를 듣는 그런 느낌이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선생님이 하나하나 잘 알려주시며 친절하게 말을 걸어주시고 학생들에게 신경을 많이 써주셨다. 과제 또한 어렵지 않으며 5,10분 이내로 끝내는 것이 가능할 정도로 부담되지 않는 정도.
Activity	액티비티는 생각보다 많았고 재밌었다. 주마다 다른 활동들이 있었으며 2,3일에 한번 꼴로 부담스러운 정도도 아니며 3시에 모든 활동이 끝나도록 되어 있어 그 외의 시간은 자유시간 이다. 특히 추천하는 것 들을 얘기해 보자면 컬링과 아쿠아리움. 컬링은 직접해보니 균형 잡는 것이 정말 어려웠지만 나에게게는 정말 생소한 운동이었기에 하면 할수록 신기하고 재미있었다. 아쿠아리움은 Down town에 위치하여 있으며 한국의 아쿠아리움과 다소 비슷했지만 캐나다만의 분위기를 가졌으며 사진 찍기에 참 좋았다.

3. 생활전반

구분	결과보고(서술형)
날씨	현지에 사는 동안에는 정말 운이 좋게도 며칠을 제외하고는 날씨가 좋았다. 그렇지만 평소에는 정말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raincouver라고 할 정도니 우산, 혹은 우비는 꼭 챙겨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안전	보통 가로등이 있지만 가로등이 없는 길도 종종 있기에 길을 찾기 어려울 정도. 때문에 밤길은 항상 조심해야한다. 친 구중 몇몇은 너무 어두워 자기 집도 지나칠 정도 였다고 한다. 그리고 밤이 되면 정말 길에 거의 사람이 없다. 이상할 정도로 없다. 고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 밤늦게 혼자 다니는 건 비추.
숙소	학교기숙사() 홈스테이(o) 외부 숙소() 기타() 방은 살짝 작았지만 집은 정말 괜찮았다. 홈 가족들은 늘 나를 먼저 생각해주시고 집에 늦으면 걱정해주시고 먼저 말도 많이 걸어주시며 친해지려고 노력해주셔서 좋았다. 집에서는 9시 이후 샤워 금지, 문은 조용히 닫기, 샤워 후 물기 제거, 세탁기는 주말에 1번등. 조금 많은 규칙을 요구했지만 남의 집을 빌려쓰는 입장에서 그 정도는 해야 한다고 생각했고 익숙해지면 괜찮아지니 이걸 큰문제는 아닌 것 같다.
식사	학교식당() 홈스테이 (o) 외부 식당 (o) 기타() 보통 저녁은 친구들과 나가서 먹었지만 가끔 집에서 먹을 때의 저녁에 대해 얘기하자면 저녁 6시정도에 먹었는데 늘 따뜻하게 데워주시고 양도 푸짐하게 주셨다. 디저트까지 주신 적이 있어 불만은 전혀 없다. 심지어 맛도 좋았다. 점심 도시락도 입맛에 맞았다. 양이 조금 적었지만 과자들도 챙겨주셔서 괜찮았다. 한 가지 아쉬운 건 밥이 우리나라 밥과는 달리 흘날리는? 동남아식 쌀이여서 잘 맞지 않았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는 정말 괜찮았다.
교통	학교에서 Compass카드 라는 것을 주는데 한달권을 구매하면 Zone1 어디를 가든 버스나 Skytrain은 몇 번이든 탈수 있는 카드다. 이 카드를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십분거리에 있는 학교로 통학했다. 교통에 대한 문제는 걱정안해도 될 것 같다.

4. 소요경비 (본인이 지출한 총 비용)

단위: 원

※ 출국 전 사전 납부 금액 외에 추가로 현지에서 본인 지출내역을 써주세요.

항목	비용	비고(간략한 비용내역 등)
항공료, 여행자보험		출국 전 사전 납부
식비	약 25만원	외식 및 과자등
기념품	약 20만원	기념품
쇼핑	약 15만원	옷, 화장품
교통비	약 5만원	Ferry 및 다른 교통수단 이용
참여비	약 5만원	Flyover 및 다른 프로그램 비용
합계	약 70만원	

5. 출국 전 준비사항

첫째, 한국에서 살 수 있는 것들(작은 거라도) 출국 하기 전에 준비해가면 좋다. 참고로 김은 이미 근처 마켓에서 살 수 있으니 부수적으로 사가거나 안사기도 될 것 같다.

둘째, 현지에서 쇼핑을 많이 하여 캐리어에 다 들어가지 못해 당황했던 친구들이 있었다는 것. 맥아더글랜 혹은 메트로타운이라는 쇼핑센터에 가게 되면 타미힐피거,폴로,코치등이 한국에 비해 비교적 싼 편이라 자꾸 구매하게 될것이기에 캐리어에 여분공간을 남겨두라는 것.

셋째, 만약 겨울에 밴쿠버에 오게 된다면 잠자리가 추울 것이니 보온용품을 챙길 것. 캐나다는 한국과는 다르게 전기장판이 없기에 잠자리에 들 때 시-원한 침대와 마주해야한다. 필자는 잘 때 답답한 건이 싫어 한국에서 반팔, 수면바지 등을 입고 자지만 현지에서는 침대에 패딩을 깔아야 했고 맨투맨과 카디건을 입고도 코가 시려워 이불을 머리끝까지 덮고 잤다. 따뜻한 수면잠옷은 필수.

마지막으로 비행에 관한 얘기인데 생각보다 긴 시간을 날아야 하기에 발이 붓고 피부가 건조해지고 몸이 쑤신다. 베개를 가져가는 것을 추천. 에어 캐나다 항공을 이용할시 앞좌석에 태블릿이 있는데 꽤 밝아 눈이 부실 수 있으니 안대또한 가져가는 것을 추천한다.

6. 본인 소감 및 평가

글로벌 빌리지에서의 친구들과의 소통에 의해 외국인들과 말하는 것을 익숙했지만 현지에서는 결코 그렇지 않았다. 말 그대로 생활을 위한 영어를 해야 했고 집에서조차 편하지 않은 생활이 이어졌다. 처음에는 정말 답답했다. 내 말이 의미 그대로 전해지지 않아 소통의 어려움이 많았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행동이기에 더욱 조심스러웠다. 긴장 과 긴장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현지사람은 엄연히 다른 나라 사람이 라는 편견에 때문에 더 불편했었던 것 같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사람 사는 곳이다 똑같다 라는 말이 맞듯 그들도 웃기면 웃고 슬프면 슬퍼했다 사진 찍을 때는 노메이크업이라며 부끄러워했으며 신혼여행으로 밴쿠버 놀러오라고 웃으며 농담을 하며 내가 엉뚱한 소릴 하며 웃을 때 같이 따라 웃어주었으며 출국 전날에는 나를 꼭 안아주며 이별을 슬퍼해주었다. 말하는 언어만 달랐던 그들은 내 친구나 다름없었다. 그들에게 참 많이 배웠고 참 많은걸 해보았다. 이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벌써 한국행 비행기에 앉아 있지만 생각해보면 캐나다에서의 3주. 그 시간은 결코 나에게 짧은 시간이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7. 사진보고서(6장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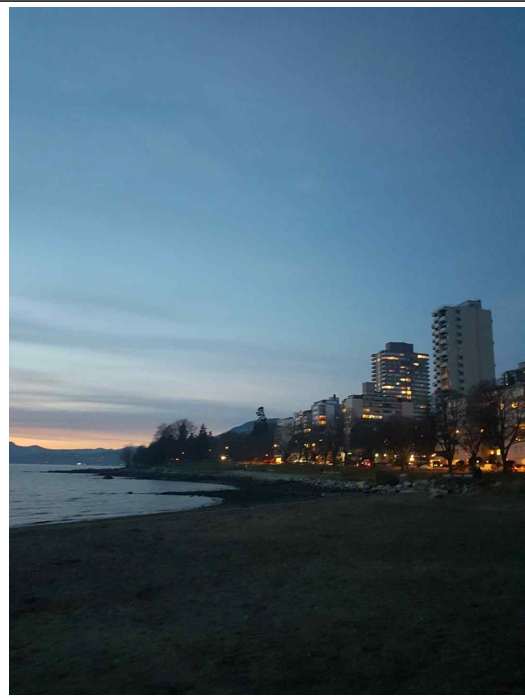
Sky train을 타고 간
Gass town의 증기시계가 증기를 뿜고
있는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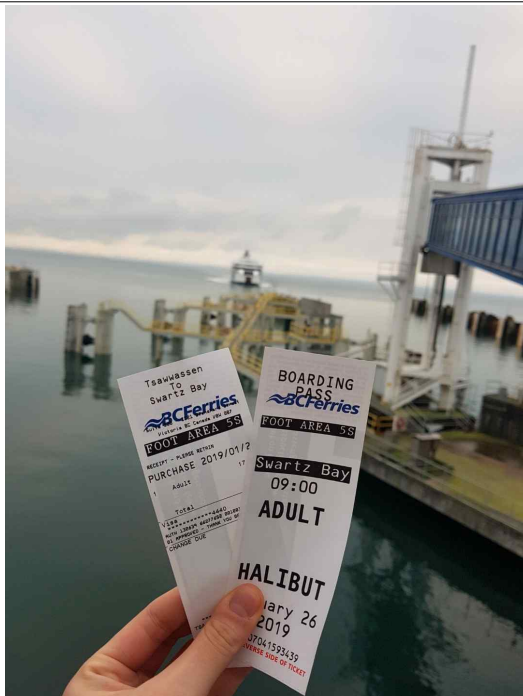
Langara College의 정경.
비가 와서 흐린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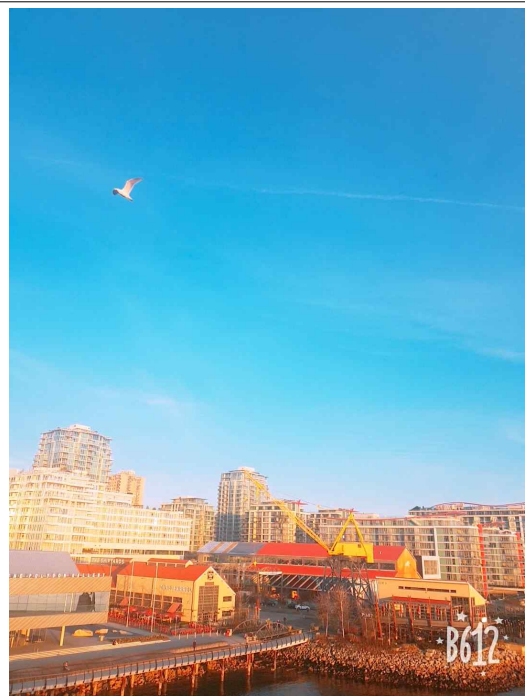
Granville Island의
Public market의 모습.



English bay의 야경.



Victoria에 가기 위해
Ferry 정류장에서 찍은 사진.



Sea bus를 한 후
North Vancouver에 도착 후
전망대에서 하늘을 찍은 사진.